

# 태권도원서 체험형 즐길거리 '만끽'

태권도진흥재단, 노동절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이벤트 마련  
전통놀이·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 비트'·콘텐츠 체험 인증샷까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휴원일 없이 태권도원을 운영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태권도원은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원일이다. 하지만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을 위해 월요일인 4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수요일인 6일에 휴원한다.

이 기간 태권도원 매표소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운영한다. 전통놀이와 대형 제기, 대형 볼록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구역과 1천원부터 3천원까지 저렴한 비용에 참가할 수 있는 유료 체험 구역이 있다. 유료 체험으로는 징검 자개 노리개 만들기, 벨트 키링 만들기 등 가성비 있는 체험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념촬영, 음료와 간식거리



판매펀트 등도 같은 공간에 위치시켜 특별한 날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태권도원의 인기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배

권 비트'는 1일부터 5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에 공연을 한다. 눈을 가리고 송판을 깨는 '갑각 격파', '고공 격파' 등 태권도 격파 기술과 겨루기 품새 등 다양한 태권도의 매력을 선보인다. 올해부터는 성인 기준 1만원의 관람료를 책정한 대신에 공연시간을 기존 20분에서 40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동과 청소년, 다자녀 가정, 태권도인, 장애인, 경로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관람료 할인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누리집이나 태권도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발 560미터에 위치한 전망대도 운영에 나선다. 전망대를 가기 위해 탑승해야하는 모노레일의 선로 교체 공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이달 마무리 한 가운데 최근 시험 운행과 정밀 안전 검사를 마치고 재운행에 나서게

되었다. 560미터에서 바라보는 백운산을 비롯한 무주군 영동군 일대의 절경과 함께 전망대 카페에서의 시원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체험관 앞'에서는 콘텐츠 체험을 인증하는 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원 캐릭터인 태랑이 풍선을 선물하고 체험관 이용이 제한되는 영유아들에게는 뽑기 이벤트를 통해 크레파스 등을 증정한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국민관광지이다"라며 "태권도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광 상품이자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7만명이 참가한 태권도 관광 상품 '태권스케이' 출시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은 5월까지 상품 기획을 마무리한 가운데 최근 시험 운행과 정밀 안전 검사를 마치고 재운행에 나서게



26일(현지시간) 2026 런던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베스티안 사웨.

## "기록, 철저한 통제의 산물"

사웨, 런던 마라톤서 '마의 2시간 벽' 허물어

케냐의 사베스티안 사웨(Sebastian Sawa)가 인류의 오랜 숙원이던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공식 대회에서 무너뜨리며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 사웨는 이번 기록의 핵심으로 '준비와 규율'이라고 말했다. "자기 통제를 꼽았다."

26일(현지시간) 열린 2026 런던 마라톤에서 사웨는 42.195km 구간을 1시간 59분 36초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1981년 켈빈 키프티가 세운 종전 세계 기록(2시간 00분 35초)을 무려 65초 앞당긴 기록이다. 2위 요미프 케펠차(에티오피아, 1:59:41)와 3위 제이콥 카플리모(우간다, 2:00:28) 역시 기존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포디움을 완성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사웨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을 넘어선 정신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기록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통제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사웨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월 부상 복구 직후부터 4개월간 지옥 훈련을 견뎌왔다고 밝히며, "기록, 철저한 통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라톤 전설' 엘리우드 킵초게도 사웨의 기록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킵초게는 2019년 비공식 경기에서 1시간 59분 40초를 기록하며 '서브 2시간 이내 완주'의 가능성을 처음 열었던 인물이다.

마라톤 역사상 공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6년생인 사웨는 인류의 마라톤 역사를 '서브 2 시대'로 인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시스

### 정읍시장배 생활체육

#### 당구·씨름대회 성료

정읍시가 지난 25일과 26일 주말 동안 관내 곳곳에서 시장배 생활체육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읍시 당구연맹은 시의 후원을 받아 지난 26일 관내 당구장 5곳에서 '제22회 정읍시장배 3C 당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정읍 지역 동호인 100명과 다른 지역 동호인 156명 등 총 256명이 참가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우승자가 가려질 만큼 참가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경기 결과 우승은 익산의 김태훈, 준우승은 전주의 이상일, 공동 3위는 군산의 최지민과 안주의 이용현 선수가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정읍시 씨름협회 주관으로 '제31회 정읍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렸다.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여성 동호인 등 1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씨름에 대한 열기를 높이는 무대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지역 생활 체육인들이 경남 18개 시·군 일원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제공)

### 전북 생활체육인, 전국대축전서 '선의의 경쟁'

#### 1270여명 40개 종목 출전

전북지역 생활 체육인들이 전국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비롯해 경남 18개 시·군에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펼쳐졌다.

전북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약 1270명이 40개 종목에 출전,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대축전은 전국체육대회와 달리 시·도간 종합순위를 결정, 발표하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는 상위 입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에서 산악은 단체 우승을 차지했고 롤러와 빙상, 패러글라이딩, 핸드볼은 단체 준우승을 차지했다. 파크폴링은 3위에 올랐다.

/뉴시스

또 전북 선수단은 지난해보다 성적이 대폭 향상 돼 성취상을 차지했고, 국악기공 종목에 출전한 공병관(92) 어르신도 최고령상을 받았다.

선수단 입상식이 펼쳐졌던 개회식에서 전북 선수단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